【자유교회 소식】

1. 아름다운 찬양으로 매주 하나님께 영광과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찬양대와 찬양팀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 오늘 설교는 김영록 원로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 우리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교제와 나눔이 풍성할 수 있도록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최정아 집사님이 지난 주 목요일 Auburn으로 이사하셨습니다.
5. 이번 주 친교식사는 안숙자 집사님이 준비해 주셨고 다음 주는 최유정 권사님이 준비해 주십니다.
6. 출타중인 분들과 장기간 결석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주 헌금통계

십 일 조:	$1,132.00	
감사헌금:	$170.00	
주일헌금:	$20.00	
특별헌금:	$0.00	합계 $1,322.00

중보기도 제목

- 우리교회에 주신 오천 명을 먹이는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옵소서.
- 월드비전을 통해 우리교회가 돕는 어린 생명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인도하옵소서.
- 우리교회가 물질로 돕는 단체들을 통해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 순서

오전11:00 **예배인도 이진우 목사**

찬 양	Praise	다 같 이
신앙고백	주기도문	다 같 이
찬 송	형제의 모습 속에	다 같 이
기 도	Prayer	현미수 청년
찬 양	Anthem	호산나성가대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 도 자
성 경	**요한복음 1:12-13**	인 도 자
설 교	**하나님의 자녀**	김영록 원로목사
찬송과봉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다 같 이
파송과축도	Benediction	김영록 원로목사

■ 다음주 기도: 최원춘 장로

예 배 와 모 임 안 내

주 일 한 어 예 배	오전 11시
주 일 교 회 학 교	오전 11시
한글학교& 찬양대	주일 오후 1:30
Nexus Youth Group	수요일 오후 7시

교 회 를 섬 기 는 이 들

목 회 사 역	이진우 목사
행 정 사 역	최원춘 장로 최장권 집사
선 교 사 역	안미나 집사 최종국 청년
찬 양 사 역	장인숙 성도 최종원 청년
친 교 사 역	최유정 권사

2013년 4월 14일 제347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LIBERTY METHODIST CHU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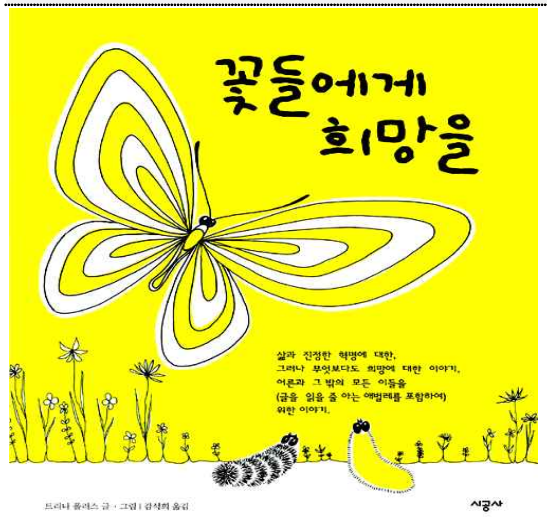
자 유 교 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

자유교회 Liberty Methodist Church

1702 Milton Way., Milton WA 98354
Tel. (253) 661-5436, 227-1775
Homepage: www.jayoochurch.com
E-Mail: jayooch@gmail.com

추천도서



얼마 전 워기청 연합예배 설교시간에 소개한 책입니다. 교회홈페이지 나눔 게시판에 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줄무늬 애벌레가 호랑나비 애벌레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알에서 태어나자마자 무엇을 할 지 몰랐지만, 다른 애벌레들이 나뭇잎을 갉아먹는 것을 보고 자신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렇게 무의미하게 잎사귀만 갉아 먹던 줄무늬 애벌레는 '뭔가 더 흥미로운 삶이 있을 것' 이라는 생각과 함께 그동안 지내오 나무를 떠납니다.

그러던 도중 수많은 애벌레들이 구름을 오르기 위해 자신들의 몸을 사용해 기둥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되고, 자신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저 구름위로 가면 알게 된다고 믿고 기둥 속으로 뛰어 들게 됩니다. 기둥 속에 뛰어 들어 다른 애벌레들을 밟으며서 기둥의 끝을 향해 오르던 중 한 마리의 노랑 애벌레와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그 노랑 애벌레를 밟고 위로 향하려 하지만 차마 그러지 못하고 노랑 애벌레와 함께 기둥을 내려갑니다. 기둥에서 내려오 줄무늬 애벌레와 노랑 애벌레는 서로 좋아하게 되고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즐거운 시간을 갖다가 질려버린 줄무늬 애벌레는 노랑 애벌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으려 애벌레 기둥 속으로 뛰어듭니다. 혼자 남겨진 노랑애벌레는 한 늙은 고치를 만나게 되고 자신도 고치가 되어 나비가 됩니다.

한 편 줄무늬 애벌레는 기둥 끝에 다다랐을 쯤에 구름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비가 된 노랑애벌레를 만납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나비를 따라 노랑 애벌레가 고치가 되었던 자리로 인도하고 줄무늬 애벌레가 나비가 되도록 도와줍니다.

이 책의 지은이 '트리나' 는 "나에게 나비에 관한 믿음을 갖도록 도와 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참된 자신이 되고자 애쓰 한 애벌레의 이야기 입니다. 이것은 나 자신 -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지은이의 말대로 이 책은 현대에 삶을 목적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나머지 자신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하는 이 시대에 마음의 힐링과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책일 것입니다.

【자유교회 Vision 소개】

- **자유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자유교회는 사람보다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지길 원합니다. 교회의 행정과 운영에 있어서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할 것이며 실험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를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회복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기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가깝게는 지역사회로부터 크게는 세계 각처에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실제적으로 헌금의 50%를 선교와 구제 그리고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일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기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는 자에게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모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권세와 문화에 좌우되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